

물질상용장애자의 성격특성：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외-내향성을 중심으로

박 인 호 · 유 희 정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Eysenck의 세 성격차원 중에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나 외-내향성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상용장애자들의 성격 특성을 Eysenck의 세 성격차원인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및 외-내향성 차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19명의 물질상용장애 집단과 34명의 통제집단에 대하여 한국판 성격차원 검사가 실시되었다. 물질상용장애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고, 좀 더 내향적이며, 사교성이 낮았으나 신경증적 경향성에서는 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ysenck의 3차원적 성격이론은 생물학적 기초를 갖고 있는데, 정신병적 경향성, 외-내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이 세가지의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Eysenck & Eysenck, 1985). 전형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 전형적으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근심걱정이 많고 주로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에 대한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평소 침착하며, 근심걱정이 많지 않다.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한 편이며, 자기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하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Eysenck & 이현수, 1985). 정상과 이상은 연속적 차원으로 개념짓고 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고 우세한 사람은 정신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 정신병질자 및 행동장애자로 진단되기 쉬우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적 장애라기보다는 정상적 성격 특성의 한 측면으로 평가되어야 한다(Eysenck & Eysenck, 1975).

물질상용장애자를 중심으로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성격특성은 물론이고 심리학적 변인과 관련시키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Gossop(1976)은 약물중독자를 구강내 복용자와 정맥내 주사자로 구분하여 성격특성을 연구한 결과 두 집단이 모두 정상인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았는데 특히, 구강내 복용자가 두 척도 상에서 점수가 더욱 높았다. 그러나 외-내향성에서

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Blaszcynski, Burich 및 McConaghy(1985) 연구에서 역시 정상인에 비하여 혜로인중독자가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았으나 외-내향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Wells와 Stacey(1976) 연구에서는 약물중독자와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 약물중독자가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 및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았다. 그러나, 외-내향성 차원에서는 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반면 Rankin, Stockwell 및 Hodgson(1982)의 연구에서는 알콜중독자가 더욱 내향적이고 정신병적 경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성격특성을 보였다. Doherty와 Matthews(1988)는 아편중독자의 성격특성을 정상인과 비교한 결과 약물중독자가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더 높았고 더욱 내향적이었다.

선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질상용장애자는 Eysenck의 세 성격차원 중에서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점에서는 일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외-내향성 차원과의 관계는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ysenck의 외-내향성차원은 사회성과 충동성인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요인이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Farley, 1970),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교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하여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항상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Eysenck & Eysenck, 1985). 약물중독자가 좀 더 내향적인 이유는 그들이 사교적이지 못하고 자신이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며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실제의 그들보다 더욱 비협조적이고, 좀 더 저항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위 문화적 고정관념에 따라 중독자들은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Gossop, 1980).

상술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자의 심리적 특성을 Eysenck의 3차원상의 성

격차원이론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특히 물질상용장애인들의 성격 특성 중에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높다는 일치된 결과를 얻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의 여부는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지 밝혀봄과 동시에 외-내향성 여부를 밝혀 보기 위하여 외-내향성차원은 사교성과 충동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내향성차원을 두 소척도로 구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상용 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교적이지 못함에 따라 더욱 내향적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물질상용장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 물질상용장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더욱 내향적일 것이고 사교성은 좀 더 낮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환자집단은 정신과 의사가 DSM-III-R에 근거하여 진단한 물질상용장애자 19명 (마리화나 : 1명, 혜로인 : 3명, 알콜 :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서울 시내 소재 3개 종합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인 환자들로서 모두 남자였고, 평균연령은 31.2세 ($SD=3.24$)였다. 통제집단은 서울 시내 소재의 C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서 습관적인 약물복용의 경험없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남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9.4세 ($SD=2.48$)였다. 자료수집은 1990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물질상용장애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신병적 경향성,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허위성 점수와 외-내향성을 다시 사교성과 충동성의 두 소척도로 구분하여 얻은 점수 각각에 대한 t-검증을 시행하였다.

심리검사

Eysenck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Eysenck & 이현수, 1985) : 이 검사는 Eysenck(1975)의 성격차원검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으로서 모두 7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병적 경향성, 외-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허위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검사의 네 척도에 대한 성인 남녀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 정신병적 경향성 (.66, .55), 외-내향성 (.80, .78), 신경증적 경향성 (.79, .74) 및 허위성 (.82, .81)

결 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고 외-내향성 차원의 점수

가 낮아서 더욱 내향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허위성과 사교성점수 역시 낮다.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과 충동성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논 의

물질상용장애자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결과에서 물질상용장애집단이 실제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았던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에서는 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Ogden, Dundas & Bhat, 1989; Teasdale & Hinkson, 1971; Gossop, 1976 ; Doherty & Matthews, 1988). 가설 1에 부가하여 언급할 사실은 물질상용장애집단을 다시 알콜중독집단과 약물중독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에서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물중독자의 평균점수는 5.25였고 알콜중독자의 평균점수는 3.27이어서 약물중독자가 알콜중독

표. 물질상용장애집단의 성격변인 평균점수 및 t-검증결과

성격변인	집단	물질상용장애집단 (N=19)	통제집단 (N=34)	t
정신병적 경향성		3.64(2.07)	2.40(1.93)	2.36*
외-내향성		10.34(3.66)	12.77(3.93)	2.39*
신경증적 경향성		14.85(3.30)	14.68(3.93)	0.92
허위성		7.00(3.55)	10.16(3.65)	2.98**
사교성		5.34(2.14)	7.27(2.36)	2.78**
충동성		5.47(2.22)	5.59(2.13)	0.85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양방향t

자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 사실은 비합법적인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과도한 음주습관을 갖는 사람에 비하여 좀 더 사회적 이탈행동을 보이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약물중독자를 더욱 심한 반사회적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Rankin et al., 1982). 세 성격차원 중에서도 정신병적 경향성은 반사회적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의 위험인물이라는 생각을 지지하게 한다. 외향적인 사람에 비하여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즉, 외향적인 사람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과 달리 위험상황임을 인식하더라도 충동적이고, 위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행을 저지르지만,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실제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점과 주위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불잡히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일 수 있다(Jamison, 1980).

본 연구에서 예외적으로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과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통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은 물질상용장애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기분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Gossop, 1980). Eysenck의 성격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뿐 아니라 Conley와 Prioleau(1983)는 알콜중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MMPI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사회성(Pd), 우울증(D) 및 강박증(Pt) 척도의 점수가 높아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물질상용장애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신경증적 경향성 평균점수간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물질상용장애자의 사례수가 적은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앞으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거쳐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질상용장애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내향적일 것이고 사교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좀 더 내향적이면서 사교성 점수가 낮음에 따라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도 언급되었듯 물질상용장애자 스스로가 자신이 사교적이지 못하고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점과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 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상용장애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애쓰지 않는데 (De Silva & Eysenck, 1987) 이 사실은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결과에서 물질상용장애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수준에서 자신을 좋게 보이고자 하는 허위성 척도 점수가 낮음에 따라 일치되고 있다. 또한 물질상용장애자들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음에 따라 무조건적 처벌 또는 비보상에 대해 분노 및 공격반응을 더 많이 보이므로(Gay, Owen, Davis, & Tsaltas, 1983),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더욱 잘 어울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점차 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것이다.

부가하여 물질상용장애집단을 알콜중독집단과 약물중독집단으로 구분하여 외-내향성의 두 소체도인 사교성과 충동성에서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물중독집단의 충동성 평균점수(5.9)는 알콜중독집단의 평균점수(4.8) 보다 높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약물중독집단이 사교성(4.41)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 하는 허위성(6.40)의 평균점수는 알콜중독집단의 사교성(5.32) 및 허위성(8.40)의 평균점수 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약물중독자가 알콜중독자에 비하여 좀 더 사교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적음을 시사해 주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약물중독자 사례수가 너무 적으므로 ($N=4$)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앞서 언급된 정신병적 경향성은 물론 충동성, 사교성, 허위성 등의 변인에서의 약물중독집단과 알콜중독집단에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ysenck(1967)의 외-내향성은 Pavlov의 신

경계의 강도특성과 관련이 되어서 약한 신경계는 내향성, 강한 신경계는 외향성과 같다. 그는 약한 신경계의 활동성은 낮은 감각역치, 낮은 초경계적 제지역치(transmarginal inhibition), 낮은 자극 입력가(stimulus input)에 대해서 최대의 활동능력을 보인다고 하였고, 강한 신경계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약물종류를 구분하여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성격특성과 관련시키면 약물의 작용과정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진정제는 피질상의 제지를 증가시키고 흥분을 감소시켜서 외향적인 행동유형을 유도하는 반면, 자극제는 피질상의 제지를 감소시키고 흥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향적인 행동유형을 유도하게 된다(Wilson, 1981). 그러므로 같은 물질상용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독자가 되었다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보다는 생물학적 기초를 갖는 성격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질병원인을 고려하여 알콜 및 다양한 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된 원인을 찾고 적합한 치료를 하면 훨씬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독에는 물질상용장애는 물론 대식증을 수반한 알콜중독등의 식이장애 및 병적도박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충동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중다요인상에서 나타나는 충동성이 중심이 되는 중독적인 성격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알콜에서 약물로, 또 비정상적 식이태도에서 약물로의 전이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 종상이 여러 증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Lacey & Evans, 1980) 치료과정에서 이들의 성격특성을 이해하여 치료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시빌 아이쟁크, 이 현수(1985). 성격차원검사(성인용, 청소년용). 중앙적성출판사.
Blaszczyński, A. P., Buhrich, N., & McConaghy, N.(1985). Pathological gam-

blers, heroin addicts and controls compared on the EPQ 'Addiction scal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0, 315–319.

- Conley, J. J., & Prioleau, L. A.(1983). Personality typology of men and women alcoholics in relation to etiology and prognosi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4, 996–1010.
- De Silva, P., & Eysenck, S. B. G.(1987). Personality and addictiveness in anorexic and bulimic pati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749–751.

Doherty, O., & Matthews, G.(198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opiate addi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171–172.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Charles C. Thomas, Publisher.

Eysenck, H.J. & Eysenck, S. B. G.(1975).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Junior & Adult)*. Hodder & Stoughton.

Eysenck, H. J. & Eysenck, M. W.(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Plenum Press.

Farley, F. H.(1970).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two personae of extraver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377–379.

Gossop, M. R.(1976). Drug dependence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11, 741–753.

Gossop, M. R., & Eysenck, S. B. G.(1980). A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personality of drug addicts in treatment.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75, 305–311.

- Gray, J. A., Owen, S., Davis, N., & Tsaltas, E. (1983).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lations between anxiety and impulsivity. In M. Zuckerman (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Jamison, R. N. (1980). Psychoticism, deviancy and perception of risk in norma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87-91.
- Lacey, J. H. & Evans, C. D. H. (1986). The impulsivist: A multi-i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1, 641-649.
- Ogden, M. E., Dundas, M. & Bhat, A. V. (1989). Personality differences among alcohol misusers in community trea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265-267.
- Rankin, H., Stockwell, T., & Hodgson, R. (1982). Personality and alcohol depend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45-151.
- Teasdale, J. D., & Hinkson, J. (1971). Stimulus drugs : perceived effects on the interpersonal behavior of dependent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6, 407-417.
- Wells, B. W. P. & Stacey, B. G. (1976). Soci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of young drug misuser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71, 243-251.
- Wilson, G. D. (1981).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 Springer-Verlag, Berli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ubstance Abusers : With Reference to
Psychoticis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Introversion**

Park, In-Ho and Yoo, Hee-Jung

Asan-Medical Center

Several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substance abuser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s on psychoticism and neuroticism, scale on EPQ, whereas consistent results were not found on extraversion-introversion.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lineat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ubstance abusers and controls' based on the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of psychoticis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introversion. The Korean EPQ was administered to 19 substance abusers (3 heroin addicts, 1 marijuana addict and 15 alcohol addicts) and 34 controls. Results showed that substance abusers characteristically exhibited higher scores on psychoticism, and were more introverted and less sociable than controls. On neuroticis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